

한국 대학의 교수방법, 이대로는 안된다

# 학생들이 바라본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

편집실

□

## 1

대학교육이라는 ‘큰 지붕’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라는 두 ‘기둥’으로 지탱돼 간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140점 이상의 학점이 전공·교양·일반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선택도 전공과 교양수업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결국 학생들의 선택은 전공과 교양수업이라는 두 영역 안에 머무른다. 하지만 이런 두 ‘큰 기둥’은 균형을 잡지 못해

대학교육 전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지난 해 서울대 본부가 1,3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5%가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답해 학생들이 교양교육에 대해 무관심함을 드러냈다. 어떤 강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선배들이 듣던 강의를 그대로 따라들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교양수업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수업준비 없이 강의에 임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양교육

\* 이 글은 각 대학이 발행한 신문의 기사 중 특집 주제와 의도에 맞는 내용을 선정, 편집실의 정유석 연구원이 재구성한 것임.

에 열심이기보다는 마지못해 학점을 채우는 실정이다. 매학기 수강 신청기간이 되면 다른 과목에 비해 과제나 시험도 적고 학점을 잘 주는 소위 ‘널널한’ 과목은 불과 몇 시간 안에 정원을 채운다. 하지만 학생들도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김원중 군(산업공·2)은 “갈수록 전공수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교양수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많다. “나름대로 교양수업에 관심을 가져도 교수님의 열의가 부족한 것 같고, 강의내용도 책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송재연 군(국어교육·2)의 지적에 대해 김홍우 교수(정치학)는 “문제를 느끼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학생의 소극적 자세와 교수의 열의 부족이 서로를 방치한 채 계속 축적되다 보니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김남두 교수(철학)는 “본부가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내용개선이나 학생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에 소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학생들의 무관심, 교수들의 무성의 그리고 본부의 비탄력적인 교과운영이 얽혀 교양교육은 갈수록 중심을 잃고 있다.

## 중심 잃은 교양교육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교양교육에 대해 요구사항이 많다. 우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교양과목 중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은 그리 많지 않다. 교양에서도 각 전공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양필수 과목이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학, 국어·작문, 외국어 등 교양필수 과목

들은 다양한 과목을 접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눈엣 가시’다.

교양과목과 수업내용의 다양화도 많은 학생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수업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암기나 필기 위주의 강의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승연 군(인류·2)은 “대부분의 교양과목들은 주어진 교재 한 권을 한 학기에 마치지 못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모를 지경이다.”라며 “갈수록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외국어 회화수업이나 문화 분야에 관한 수업을 늘렸으면 한다.”고 말한다. 고철환 교수(해양학)는 “학생들이 바라는 참신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강의를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강의의 완결성을 위해서 강의를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합동강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인다.

또한 강의에 대한 안내·홍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양 강의를 선택할 때 주어진 강의 안내서보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양과목의 홍보가 부족한 상황은 매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취소하고 변경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원중 군은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그 내용을 다루는 강의를 무엇인지 몰라 못 듣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 다양화와 내실화 필요

이러한 지적들이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학과체제에서는 전공학점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교양교육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기 힘들다.”  
 는 한 교수의 지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공 이수학점 하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교양특별강좌’ 등의 내용 개선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학생들이 교양영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김남두 교수는 “교양과목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을 통해 재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박상준, “교양교육을 점검한다”, 『대학신문』, 1995. 11. 6일자).

## 2

**최** 근 각 대학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근간이 되는 영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적인 변화, 즉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내적인 변화, 즉 영어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서로 맞물려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변화는 영어교육의 목적 또한 교양과 지식 축적의 측면에서 실용성과 현실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양필수인 교양영어와 어학실습실 수업에 실용 영어회화를 새로이 도입, 시행함으로

써 실질적인 영어회화 구사능력 향상을 꾀하게 됐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대학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전담 영어회화’ 교육은 영어회화가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행초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외국인 교사의 지도방법 미숙, 외국인 교사와 영어교육 운영 담당자와의 협력 부족, 교육내용의 협소함 그리고 교양 영어특혜 교육과 회화교육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한양대에서는 교양필수로 ‘외국인 전담 영어회화’를 개설하고, 일정 수준의 영어회화 실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의 경우 졸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울산대의 경우 교내 영어영문학과 2학년생 59명 전원에게 오는 12월까지 캐나다에 있는 리자인 대학에서 강도 높은 현장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숭실대, 이화여대 등 적지 않은 대학에서 영어회화를 외국인 전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최연희 교수는 이같은 실용 영어회화 교육의 확산에 대해 “시설적 재정적인 교육여건의 향상도 일조를 했지만, 대사회적인 요구가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고 설명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회화능력 개발을 점점 저하시키고 있다.”며 교수 지도 방법과 더불어 학생들의 의식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학교 영어교육 이외

에 또 다른 영어 습득 방법을 찾는 예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실용 영어 회화가 많은 학생들에게 표면적인 지식만을 습득케 하는 극히 형식적인 내용의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학원을 다니거나 학내·외 영어 관련 특강을 듣는 학생들 혹은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될 경우에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당연한 결과이다.

### 학습자의 욕구 불만

영어습득 방법 중에서도 학생들은 강사와 맨투맨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어 관련 특강과 학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 영어교육보다 더욱 심도있고 자유스럽게 회화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려대 영어교육과 김덕기 교수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내용의 협소함과 학생들이 제한된 수업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내용상의 한계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개인 발전의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라 말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학원 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영어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대학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는 외국어 강의에서 해당 외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외국어 전용 강좌’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외국어 전용 강좌는 한양대와 외국어대의 외국어, 특히 영어 관련 학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교육여건과 전담교수의 자질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계속 확대 실시될 전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듯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 대학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교육과 읽기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교양영어 교육의 진부함, 교수방법의 전문성 결여, 학생들의 호응과 노력 미비 등의 문제점은 이후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개선의 전제조건

이제 영어구사 능력은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각 대학당국과 영어교육 담당 주체인 교수 그리고 학생 모두는 삼위일체가 되어 영어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만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 대학당국은 지나친 경쟁심리에 따른 과도한 영어교육 정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영어능력과 교육여건을 고려한 영어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교수들의 경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롭고 획기적인 교수방법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어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 또한 영어교육에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문태식, “대학교육과 영어: 회화교육 활성화로 교육시장 개방 대응”, 『고대신문』, 1995. 10. 9일자). ▣